



# 全南大學 同窓會報



<제487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26년 3월호>

## 2026년 장학증서 전달식 및 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류혜경 회장



정기총회 단체사진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 '2026년 장학증서 전달식 및 정기총회'가 2월 25일 오후 6시 30분 L7층장바이 롯데호텔 12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임원 및 회원, 장학생, 모교 보직교수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의 영상 축하 및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기총회에서 류혜경 총동창회장의 진행으로 2025년 사업결과 및 결산서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49만 동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창립 70주년 행사를



장학증서 전달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전했다.

총회 이후 류혜경 총동창회장과 모교 이근배 총장은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장관급),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과 성제훈 농업과학원장(1



김원중, 성제훈, 김상경 동문 상패 증정

급)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김원중 위원장이 무반주로 '바위섬'을 불러 행사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앞서 장학증서 및 축하패 전달식이 열렸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25명의 모교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장학생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ROTC 장학생, 여수캠퍼스 학생도 포함되어 더욱 뜻깊었다.

## 「제1회 전남대 5·18 캠퍼스 마라톤대회」

전남대학교는 5·18정신계승을 위한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대 회 명 : 제1회 전남대 5·18 캠퍼스 마라톤대회
- 2) 일 자 : 2026. 04. 05.(일), 09시~12시
- 3) 장 소 : 전남대 용봉캠퍼스 및 광주역 일원
- 4) 대회코스 :

구분	거리 및 코스내용	접수인원	참가비
1코스	5.18km (전남대 교내 순환)	518명	2만원
2코스	10km (광주역+전남대 순환)	1187명	4만원

- 5) 신청기간 : 2026. 02. 10.(화) ~ 마감시
- 6)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7)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전대캠퍼스마라톤.kr/>)
- 8) 문 의 : 대회사무국 061-375-1201, ds4bjt@hanmail.net

# 본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명예회원 위촉

##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의 가치에 부합한 인물



원으로 추대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가 2월 5일 열린 2026년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정원오 전 서울시 성동구청장(민선 6, 7, 8기)을 명예회

집행위원회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점이 전남대학교가 추구하는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의 가치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전 구청장은 '생활정치·실용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실정에 맞춘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관행을 벗어난 실험적 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성동구 구정 만족도 92.9%와 서울시 중 출산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구민들의 앞도적 지지로 현재 수도권에서 유일한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절인 1991년 '전국대학 생대표자협의회' 선전부장을 맡아 민주

화운동에 앞장섰다. 본회는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정원오 구청장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여수 출생으로 여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시립대 경제학사, 한양대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마치고 도시개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부터 민선 6, 7, 8기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지냈다.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2026년 정기이사회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2026년 정기이사회가 2월 12일 모교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류혜경 이사장을 비롯해 오형석·김제성·구승룡·임미선·장정희·김종선·정난희·조성준·김정민 이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차회의록, 감사회의록 보고에 이어 안건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5년 사업결과 및 결산서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26년도 장학생 선발 심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본격화

### '민주길 평화걷기' 등 세부 내용 확정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위원장 오형석)는 3월 6일 모교어나더키친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념행사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 위원, 총동창회 사무처장, 총학생회장, 교육정책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는 창립 70주년 주요 프로그램인 '민주길 평화걷기' 행사의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행사에서는 박관현 언덕에서 '박관현 열사 연설 따라하기', 윤상원 숲에서 '최후 항쟁의 날 연설'과 민중가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벽화마당에서는 민주동우회 해설이 마련되고, 5·18 광장에서는 동문들의 릴레이 추억담과 구호 낭독이 진행된다. 박

승희 정원에서는 헌화 행사도 계획됐다.

이와 함께 기념품 티셔츠와 뱃지 제작, 풍물패 섭외, 버스 광고 형태의 사전 홍보 등 행사 준비 사항도 논의됐다.

추진위원회는 또 '주먹밥 나눔' 행사와 재학생 대상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재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강의 주제와 강사 섭외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모교 스토리움 2층 전시실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SNS 홍보 채널 운영 계획과 재학생 아카데미 및 사진 전시회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민주길 걷기 행사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 2026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역사탐방 ②

## 고려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 홍범도 장군 유적과 한글학당 방문

- 행사명 :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 탐방 (카자흐스탄)
- 일시 : 2026년 6월 23일 ~ 7월 2일 (10일간)
- 장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원
- 참가비 : 개인당 약 500만원
- 예상인원 : 30명 ~ 50명
- 주요내용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강제 이주 지역 탐방
- 여행사 : (주)유로항공여행사 062-352-6565

※ 비용은 참가자 자부담 원칙



고려인의 첫 기차지, 우수토베역



홍범도 장군

새병원 건립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자 인터뷰

■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연과학대학동창회는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쌓기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연대동창회는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음을 보태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상욱 자연과학대학동창회장은 “광주·전남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며 “전남대병원이 지역민의 의료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역량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공간이 좁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자연대동창회 동문들은 새병원건립 모금 참여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지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류상욱 자연과학대학동창회는 “앞으로도 작은 힘이라도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동창회 ‘일구회’

“일구회 동문들도 새병원 건립에 동참”

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동창회 산하 ‘일구회’(회장 강훈열)에서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중 전남대새병원건립 특별회비 모금에 힘을 보탤다.

일구회는 전대 법대·법전문 출신 동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1987년도故 김규룡 선배가 19명의 동문으로 출발하면서 창립되었다.

지금까지 약 39년 동안 모임을 해오고 있다. 현재 정환담 전 법과대학장을 비롯하여 이정일 전 서구청장, 노동일 32대 총동창회장, 임선숙 감사원 감사위원, 장정희 전 광주지방변회사회 회장, 송진희 회계사, 김철수 변호사(변시1회) 등 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금번 전남대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중 전남대새병원건립 특별회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일구회 회원들의 조그마한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

강훈열 일구회 회장은 “향후에도 우리 전남대총동창회 및 법대·법전문동창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일구회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hospital construction fund. Includes names, affiliations, and donation amounts.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 금 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 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병원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 불편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병원 건립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9,629억원 중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 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총동창회에서는 시·도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 류혜경 총동창회장 - 졸업 축하

#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선, 49만 동문과 함께 응원”



류혜경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다. 우리 현대사의 민주, 자유, 정의는 우리 용봉인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부심 위에 여러분 곁에는 49만 동문의 응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대학에서 연구하고 배웠던 학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내고 '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학위 수여를 49만 동문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있기까지 뒷바라지에 애써주신 부모님과 정성으로 지도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국을 떠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여 석, 박사 학위를 받으신 외국인 유학생 동문들께도 축하와 존경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미국발 무역관세 경제전쟁 등 정세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길은 때로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사람을 더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타고난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했고,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서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우리 용봉인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우리 대학 선배들은 195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일을 하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전남대 총동창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각별한 후배사랑 정신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회가 되는데도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49만 동문과 함께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6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I 이근배 총장 - 졸업 고사

#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전남대인의 길 걷길”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뛰어난 개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낯선 이들과도 협력하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AI 시대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더 깊이 협력하는 사람이 미래를 엮습니다.

전남대학교의 경쟁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5·18의 역사 속에서 '대동세상'이라는 연대의 힘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지켜냈던 그 정신은 전남대학교가 지닌 가장 위대한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DNA 위에서 우리 대학은 올해 AI 대전환과 학문 융합, 인재 양성, 캠퍼스 혁신, 지역 상생을 축으로 도약의 길을 힘 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축적된 5월의 DNA는 또 한 번의 미래를 충분히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부디 사회에 나가서도 전남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남대에서 배운 뿐 아니라 연대의 정신을 체득한 인재들입니다.

어디에 있던 서로를 알아보고, 어떤 자리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함께 라는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전남대인의 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곧 전남대의 길이며, 더 나은 인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6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배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한 배움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마주해 왔을 것입니다.

술한 밤을 지새우며 책과 씨름하던 날들, 배움의 벽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해 머물렀던 순간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빛어낸 이 값진 결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 결실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곁을 지켜준 가족, 길을 밝혀주신 교수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배우고,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힘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온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넥서스』에서 인류의 힘은 개인의 지능

# 전남대, 3,895명 새 출발...“AI 시대, 미래 여는 힘은 연대”

## 제74회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2월 26일 오전 10시 교내 민주마루에서 '제74회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3,89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805명, 석사 879명, 박사 209명, 명예박사 2명 등 총 3,895명이 학위를 받으며 전남대학교에서의 배움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



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연대'가 강조됐다. 빠르게 변

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협력과 공동체 정신에 있다는 메시지가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이근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대학교는 5·18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대동 세상이라는 연대의 힘을 경험한 대학”이라며 “그 연대의 DNA가 우리 대학의 자산이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동체로 이어지는 전남대학교의 전통을 강조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우리 용봉인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49만 동문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 본회·모교, 문석환 광주교통공단사장 간담회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2월 23일 전남대학교 본부에서 문석환(경영·70) 광주교통공단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문석환 광주교통공단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했으며 20년 이상 감정평가사로 활동한 자산·재무관리 전문가로,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과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 전남대민주동우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2026년 정기총회가 3월 1일 전남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및 2026년 사업

계획·예산안 승인을 진행했다.

또 김영식 회장이 연임하고 신임 신임 이갑성 회장을 선출하며 2026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Founded in 1968**  
The best provider of semiconductor packaging and test services  
Trusted partner for more than 300 companies  
Global network in Asia, Europe and US

**Amkor Technology**

**Connecting People and Technology**

**World Best Semiconductor Packaging and Test company**

영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 amkor.com

부평사업장	인천 계양구 하나지로 110	TEL. 032-540-3114
광주사업장	광주 북구 영교로 100	TEL. 062-970-7114
순도사업장	인천 연수구 송도미려로 150	TEL. 032-728-4114

# 전남대, 민주·인권·평화의 캠퍼스에서 6,367명 새 출발

## AI 대전환·융합교육 기반 글로벌 명문대 도약 가속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2월 27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 민주마루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총 6,36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학부 신입생 4,728명, 대학원 신입생 1,214명, 편입생 425명 등 총 6,367명이 전남대학교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행사에는 대학 주요 보직자와 단과대학 학장, 총동창회 관계자,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중심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온 대학"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를 글로벌 대도약 원년으

로 삼아 '5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미래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며 진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라며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문과 호연지기를 연마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283명 모집에 5,5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33대 1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학년도(4.11대 1) 이후 최고 수치다.

# 전남대-GIST, 의과학자 공동 양성 본격화

전남대는 GIST와 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교육과 융합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의과학자 양성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전남대 의과대학과 세계적 수준의 기초·융합연구 및 AI·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GIST의 강점을 결합해 의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교육·연구·사업화를 연계한 의과학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에서도 연구 지속성과 커리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공동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임상의사가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춘 '의과학자'(Physician-Scientist)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통합한 양성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 민정준(의학·85)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월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정준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 병원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 암 진료와 연구의 중심'을 목표로 병원의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 진료 기능에 더해 연구와 교육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 전환을 시도하며 중장기 발전 기조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捕 罟**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업! 남경건설그룹이 인간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남경건설 | 남경중공업 | 대와이엔씨 | 남경중공업 | 세영개발 | 정호개발 | 대오에너지  
주소 : 619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1(자정동) 대와빌딩 8F TEL 062) 457-2000 FAX 062) 354-5001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이임 이만선(최고경영자과정·22기) 회장, 취임 오영수(최고경영자과정·24기) 회장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026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 5일 제이아트웨딩컨벤션 4층 펠리체홀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및 감사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했다.

이어 회장 이·취임식에서 11대 이만선 회장 이임식과 12대 오영수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임 이만선 회장은 “존중과 배려”를 슬로건으로 2년간 달려왔다. 동문들의 성원과 신뢰, 참여에 감사하다며 “지역 리더 공

곶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임 오영수 회장은 “새로운 도약, 함께하는 동행”을 기치로 찾아오고 싶은 동창회, 상생 네트워크 구축, 모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며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 인문학트레킹회, 수원 화성·행궁 탐방

서울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회장 강영남)는 2월 28일 동문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 일대에서 인문학 탐방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화창한 봄날 성곽길을 걸으며 선조들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수원 화성에 담긴 선조들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축성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트레킹회 동문회원들은 화성 축조의 배경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사도세자의 명한 정조대왕의 뜻을 함께 살피에 회복, 그리고 백성들이 보다 보여 탐방의 의미를 더했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

## 푸른용봉회 정기모임 열려

### 신정훈 부회장 참석해 격려



본회 푸른용봉회(회장 강창우) 정기모임이 2월 23일 ‘빡센 민물장어’ 일곡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본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 부회장을 비롯해 장정희, 이윤섭, 최현진, 임미선, 오병석, 김종선, 김영필 등 임원진과 2025년·2026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단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김광명, 이다은 동문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해 동문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한편 전남대학교 젊은 동문 모임인 푸른용봉회는 젊다는 뜻의 ‘푸른’과 전남대 상징인 ‘용봉’을 합성해 만든 말이다. 일반 회사원, 기업인, 변호사, 의사, 기자, 화가,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군의 동문이 모였다. 주로 30~40대 젊은 동문이 친목을 다지고 있다. 2010년 창립됐으며, 2015년 3월 재창립된 이후 활발하게 모임을 열고 있다. 두 달마다 정기 모임이 있으며 신입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 ROTC동문회, 모교 후보생에게 장학금 전달

### 모교 ROTC 후보생 입단·승급식 열려

모교 ROTC 후보생 입단·승급식이 3월 6일 용봉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근택 총장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통합으로 ROTC 후보생 43명(4학년 20명, 3학년 23명)이 승급 및 입단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학군장단 9명과 ROTC 동문회 관계자 4명, 62기 동문 6명, 학교 처장단 5명,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근택 총장이 직접 입단 후보생을 한 명씩 호명하며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ROTC 총동문회(회장 이정일) 250만원, 류재필 동문의 JP장학회 100만원, 서울총동창회 5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동문회는 후보생들을 격려하

고 최근 괴산 학생군사학교 동계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 출판기념회 - **신정훈**(행석·2001) 국회 행안위원장



‘돌아온 광주, 하나 된 전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2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과 이해식·김성희·박선원·이건태·채현일 의원,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의원, 이개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 된 전남’에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방향을 담았다. 그는 소멸 위기 대응 해법으로 에너지 혁신도시와 전남형 기본소득을 꼽으며 행정통합과 함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시민 주권 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진행하고 그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출판기념회 - **신수정**(사회문화복지정책·19) 광주시의회의장



‘신수정의 진심’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20년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저서 ‘신수정의 진심’ 출판기념회를 2월 25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민형배·정준호·전진숙·정진욱·안도걸·박균택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

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수정의 진심’은 북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을 거쳐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4년 만의 최초 여성 의장에 오른 신수정 의장의 풀뿌리 정치 기록과 광주와 북구의 리빙딩 비전을 담았다.

신수정 의장은 “지난 20년 정치를 지탱해 온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투박하지만 단단한 ‘진심’이었다”며 “20년의 진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회과학대학동창회 준비모임 열려



본회 사회과학대학동창회 창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승행 상임부회장)는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준비모임’ 2차 회의를 3월 4일 금남로 청하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승행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사회과학대학 동문과 본회 김영필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회과학대학동창회는 2005년 5월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등 개별적인 동문 모임이 이어졌고 현재 재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려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남대 신입교수 환영리셉션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전남대학교 신입교수 환영리셉션’을 2월 25일 L7층 장바이롯데호텔 13층에서 개최했다. 환영리셉션에서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정년보장 교원과 신입교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독서회, 2월 독서토론회 개최



서울동창회 독서회(회장 안상수)는 지난 2월 19일 독서토론회를 열고 회원 8명이 참석

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

국발 관세전쟁과 보호무역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박경식(무역·80, 관세사) 동문의 발제로 ‘세계사를 바꾼 12번의 무역전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세계사 속 주요 무역 갈등 사례를 통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보호무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독서회는 오는 3월 19일 열리는 다음 독서토론회 도서로 김민환 작가의 ‘등대’를 선정했다.

무등지구 모임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모임이 2월 23일 두암동 ‘등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김창

현, 이호근, 정호채, 강훈열, 정현철, 김태훈, 변연학, 이윤모, 윤현두, 김창호 회원이 참석했다.

# 무등산 의상봉, 한 해 무탈한 산행 바라는 시산제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6년 3월 정기산행기

3월 7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무등산 원효사 버스 종점에 집결했다. 우리 산악회는 매년 3월 정기산행일에 무등산 의상봉에서 한 해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진행하고 있다.

시산제에 필요한 짐들을 각자 나누어 배낭에 담은 후, 의상봉을 향해 출발했다.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지나 신선대갈림길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이다. 이날 초봄의 꽃샘추위로 영하의 기온에서 출발했지만, 능선에 오르자 따뜻하게 내리쬐

는 햇볕에 오히려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능선에 올라 왼쪽으로 조금 가면 암석 봉우리인 의상봉이다. 너른 바위 위에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한 형태의 '병풍 신선대'에 자리를 잡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시산제를 지낸 후, 간단히 음식복하고 하산을 시작했다.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에서 뒤풀이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김영필 회장이 신승환(고분자융합소재공학·19) 회원을 '청년홍보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오기석 고문의 피리 연주와 박원 부회장의 흥겨운 노



랫가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 류혜경 총동창회장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뒤풀이 비용 전액을 찬조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4월 4일(토요일)에는 아름다운 길을 주제로 지리산 둘레길을 가고, 5월

2일(토요일)에는 철쭉산행을 주제로 보성 일림산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재관 총무(010-6661-1800)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 “강산의 광수사랑” ⑤0 강산을 흠쳐보고 시를 건진 화가가 있다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강산을 흠쳐보고 시를 건지다, 세진포토, 2025>는 금봉 박행보의 그림과 시를 담은 시화집이다. 이 시화집에 실린 금봉의 시를 몇 편 소개한다. 먼저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 살아생전 남모르는 눈물 삼키며/연꽃 가마 타고 험한 재를 넘으시니/그리워하며 삼가 뵈고싶은 얼굴/희미한 꿈속에서라도 모시는 정 베풀어 주소서. 화가는 고향집 돌절구를 보고도 부모님을 떠올린다. 푸른 이끼 낀 정겨운 돌 절구/화분있는 창 앞에 옮겨 놓으니 /부모님이 끼친 때 문은 흔적/돌이켜보면 땀 흘리며 애쓰는 얼굴. '춘설현에서'는 스승 의제를 기리는 시다. 경치 좋은 곳에 은 일하며 여생을 보내신 스승/별장 셋길 오르면 새소리 즐겁다/좌정하시어 미음(나직이 읊음)하시면 신선의 경지(중략)/남종화풍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시니/후덕하고 너그러운 마음 오래토록 분형(좋은 향기)으로 남으리. '아내(허인자)'를 그리는 시도 있다. (전략)담박한 마음은 맑은 물 같았다/스스로 나타낸 몸소 실천한 모범/부끄러워할 바 전혀 없는 한평생이었다.

'줄작을 아쉬워하며'에서는 세월을 잊은 채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하늘에 그리며/어느덧 유성같이 흐른 70년(중략)/있는 힘 다해 개미와 벌과같이(그림을 그리리라). 선생은 한시를 많이 썼지만 여기서는 한글로 풀어서 소개했다. 금봉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시를 쓰는 농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가 있다. 필자도 이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한 줄 더하고 싶다. “금봉의 시화집을 보라. 문인화의 의미를 알게될 것이다.” 화집으로는 <금봉 박행보, 이화문화출판사>가 좋다. 산수화 대작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땀흘리던 시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만든

창.작품

Hugreen

# 김성민(무역·87) (주)산하디앤씨 회장, 모교 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 대학시절 '산하' 동아리에서 배운 경험, 모교 환원으로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기업 성장과 기부로 이어지고, 다시 후배 인재 양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경영대 무역학과 동문인 김성민 (주)산하디앤씨 회장이 2월 5일 전남대학교에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2021년부터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7천5백만 원에 이른다.

전달식은 이날 대학 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

한 주요 대학 보직자와 김성민 회장, 김영민 이사 등 관계자와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민 회장은 전남대 재학 시절 동아리 '산하'에서 활동하며 선후배 간 유대와 공동체 정신을 쌓아왔다. 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이 수도권 기업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했다고 한다.

특히 수백 명의 동기와 선후배

가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모교 출신 인재들이 주요 기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창업에 나선 김 회장은 대학 시절 공동체 경험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동아리 이름을 따 회사명을 '산하디앤씨'로 정했다. 대학 시절 형성된 인연과 가치를 사회 속에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김 회장이 이끄는 (주)산하디앤씨는 주거·상업 부문 분양 마케팅 및 컨설팅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특화된 부동산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도 모교 출신 인재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 회장

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얻은 결실을 다시 대학 공동체에 환원하고자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했다. 장학금에는 후배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 최영중(경최·10기) 남경종합건설 회장

## 새병원건립 후원금 1천만원

호남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남경종합건설 최영중(경최·10기) 회장이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며 발전후원금을 1000만원을 쾌척했다.

최영중 회장은 1982년 남경건설을 설립한 이래 40여년간 건설업에 투신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빛고을 장학회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전남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이번 기부를 결정하며 모교 병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전달식에서 “지역 의료의 중심인 전남대병원이 미래 의료를 선도할 새 병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문으로서 작은 벽돌 하나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 작은 정성이 마중물이 되어 전남대병원이 세계적인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1956년 7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전대인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온 70년,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동문·재학생·지역민의 한마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윤승기(행정·86) 부회장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급) 취임



윤승기(행정·86) 부회장이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급)에 취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 김호철 감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무처 소속인 두 보직에 대한 임용을 제청해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윤승기 동문은 제38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28기이며 감사원 심의실 법무담당관, 교육감사단 제1과장, 국방감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외교·국방감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방개혁 조직 재구조화', '방위력 개선사업',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분야 감사를 통해 방위력 강화 및 K-방산 활성화 등에 노력했다. 변호사 출신의 윤승기 동문은 각종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다양한 분야의 감사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정다은(법학·05) 동문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임명



정다은(법학·05, 광주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정다은 동문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의 부름을 받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동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명 당대표 1급포상(계엄저지, 탄핵인용),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김영필(조경·88) 사무처장

###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이사장 선출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김영필 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4년간이다. 김 이사장은 1988년 전남대학교산악회에 입회한 이래로 꾸준한 산악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 원정등반, 히말라야 가셔브룸 원정등반,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 원정등반, 호주 최고봉 코지어스코 원정등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용봉인영예대상(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회장을 맡아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필 이사장은 "우리지역 산악인재 양성을 위해 등산학교 내실을 다지고 해외원정등반 등 후배들의 도전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안영근(의학·83) 부회장

### EBS '명의' 출연



안영근(의학·83,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동문이 2월 20일 오후 9시 55분 방영된 EBS 1TV '명의' <급성 심근경색-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편에 출연해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을 알렸다. 이번 방송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40대와 파크골프 중 심인성 쇼크가 온 60대의 사례를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의 전 과정을 소개했다.

■ 이용섭(무역·70) 고문

### 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



부영그룹이 이용섭(무역·70,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용섭 동문은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제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또한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입법 역량을 발휘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안신결(산업대학원·10졸) 동문

### 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안신결(산업대학원·10졸) 동문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안신결 동문은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실, 전략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은 뒤 명예퇴직했다. 이후 민간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현장에서 산업과 기술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공직 재직 시절에는 인공지능, ICT,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and 산업정책 기획을 주도했으며 AI 집적단지 조성, 산업 거버넌스 구축,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반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손보**

**전남대학교가 그래왔듯  
한화손보, 최초의 역사를 이어가다**

깊어있게 학문을 연구하는 전남대학교처럼  
 여성의 삶을 연구해온 한화손보  
 그 결과, 수많은 최초들을 만들어 왔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집요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여성보험의 또 다른 최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일선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남대인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한화손보 연속오월 고용률

■ 윤혜경(사범대·77) 동문

‘동물 복지와 법규’ 발간



윤혜경(사범대·77, 한국리딩독연 구소 대표, 농학박사) 동문이 신간 ‘동물 복지와 법규’를 발간했다. 윤혜경 동문은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 기준인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 아래 심화된 농장동물의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소중한 역사적 성과라고 설명한다. 윤 동문은 “동물복지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인간의 선택과 태도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어릴 적 농가에서 문이 열린 닭장 안 동지의 따뜻한 달걀을 발견하고, 그 달걀을 낳아준 닭과 잠시 눈을 마주치며 고마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장면만으로도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며 동물복지는 거창한 구호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향한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 책이 우리와 동행하는 동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 김성택(치의학전문대학원·19) 동문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국 1위’



김성택(치의학전문대학원·19) 동문이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최고점을 기록해, 국가시험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총 828명이 응시했으며, 김성택 학생은 300점 만점에 278.5점을 획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정평가·결과평가)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점수 없이 합격 여부만 판정되는 구조여서 필기시험 수석은 사실상 국가시험 전체 최고 성적자를 의미한다.

■ 이미경(음악·84) 부회장

‘손끝에서 희망이’ 출간



이미경(음악·84,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장) 부회장이 지난 15년간 게재한 신문 칼럼과 현장 기록을 묶은 책 ‘손끝에서 희망이’를 출간했다. 이미경 동문은 음악치료사로 활동하며 국립나주병원에서 봉사를 하던 중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병원과 함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도 함께 진행하던 이 원장은 지난 2015년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과 도시속삼사랑학교 교장직을 맡으며 현장에 더 깊이 들어섰다.

■ 전현자(미술·89) 동문

‘꽃, 너머’ 전시회 개최



전현자(미술·89) 동문이 ACC디자인호텔갤러리에서 ‘꽃, 너머’전을 2월 개최했다. 전현자 동문은 “꽃을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며 표현했다”며 “새로운 창작을 하는 동안 상상은 그 작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는데, 그것의 결과물이 이번 작품들”이라고 전했다.

■ 전 숙(간호·74) 동문

시집 ‘바다가 우는 방식’ 펴내



전숙(간호·74) 동문이 생태환경 중요성 환기하는 시집 ‘바다가 우는 방식’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고래’, ‘플라스틱’, ‘바다’, ‘어머니’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시들을 담고 있는 이른바 ‘해양생태시집’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사유하게 한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3월 4일 사회대동창회 준비모임(2차)
- 3월 6일 70주년 추진위원회
- 3월 7일 산악회 시산제
- 3월10일 70주년 기념 회원명부 발행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2월 23일 푸른용봉회 정기모임
- 2월 25일 신임교원 환영 리셉션
- 2월 25일 본회 정기총회
- 2월 26일 전남대학교 학위수여식
- 2월 27일 전남대학교 입학식
- 3월 1일 민주동우회 정기총회
- 3월 4일 사회대동창회 준비모임
- 3월 6일 창립 7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
- 3월 7일 총동창산악회 시산제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mailto:cnud@hanmail.net)

(유)대영에너지  
energy leader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62-3  
Tel : 061-782-7800, 782-8598  
Fax : 061-782-8599

대표이사 전상선  
(산업대학원 9기, 경영대학원 5기)

(주)대동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2  
Tel : 061-782-7766, 782-9880  
Fax : 061-782-1333  
E-mail : dd420902@hanmail.net

jaac:

정안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 세무사  
조정현(경영학과 88졸)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영주체육관 2층 210호  
T\_ 062-384-6573 M\_ 010-3607-6573  
E\_ jh62cho@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우공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지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상임이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부이사장 : 20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장학기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39964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장학기금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다른 분의 명의로 송금하시거나,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cnud@hanmail.net

### I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연도	인원수	금액
1992년	15	7,500,000
1993년	15	7,500,000
1994년	15	7,500,000
1995년	15	7,500,000
1996년	30	15,000,000
1997년	50	30,000,000
1998년	50	30,000,000
1999년	27	16,000,000
2000년	30	18,000,000
2001년	30	18,000,000
2002년	26	16,000,000
2003년	30	17,500,000
2004년	30	38,400,000
2005년	30	38,000,000
2006년	30	38,400,000
2007년	31	39,600,000
2008년	29	37,200,000
2009년	29	37,200,000
2010년	29	36,800,000
2011년	27	50,700,000
2012년	30	55,300,000
2013년	32	59,700,000
2014년	32	59,700,000
2015년	29	49,305,000
2016년	28	57,500,000
2017년	23	57,500,000
2018년	36	63,500,000
2019년	24	47,500,000
2020년	24	48,300,000
2022년	59	94,000,000
2023년	24	48,000,000
2024년	25	75,000,000
2025년	33	113,500,000
2026년	27	81,000,000
합계	994	1,416,605,000

##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2025년 1~12월 분

#### 임원회비 (1월 1일~12월 31일)

- 회 장**  
 ▲류혜경(의학·76) 5,000만원
-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조국현(의학·61) 10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조성희(사법·82) 30만원
-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남진(경제·60) 30만원  
 ▲김세지(간호·71) 30만원  
 ▲김인재(간호·62졸) 5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오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의·63) 30만원  
 ▲이정재(경제·25기) 3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조복남(국어국문·51) 30만원  
 ▲주영석(법학·58) 30만원  
 ▲최영관(정치외교·61) 20만원
-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김미원(간호·72) 30만원  
 ▲김영진(산업석사·93)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병철(경영석사·96) 30만원  
 ▲구연수(행관·29기) 20만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대철(철학·79) 30만원  
 ▲김민영(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영길(교육·99) 2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재화(공학·98) 6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종렬(정치외교·74) 30만원  
 ▲김우현(경제·75) 30만원  
 ▲나용수(산관·17) 2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 ▲신종복(수의·71) 30만원  
 ▲오광인(의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이선규(행정대학원·6)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장문자(여성지도자과정·4기) 30만원  
 ▲전상선(산관·09기)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정찬구(경제·95) 30만원  
 ▲조종태(명예회원) 30만원  
 ▲천득열(건축공학·73)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30만원
-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300만원  
 ▲김제성(경제·86) 500만원
- 상임부회장**  
 ▲강창우(산업공학·92) 100만원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경태(경영·83)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재봉(의학·84) 300만원  
 ▲김종서(의학·92) 300만원  
 ▲김현화(사학·81) 300만원  
 ▲박명수(수학·87) 300만원  
 ▲박정용(무역·85) 100만원  
 ▲서영수(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윤경철(의학·88)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계영(경영석사·3) 300만원  
 ▲이승행(정치외교·84)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임선숙(사법·85) 100만원  
 ▲장정희(사법·87) 200만원  
 ▲전진수(화학·88) 50만원  
 ▲정만홍(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홍기천(경영·80) 300만원  
 ▲홍승기(경제·98) 5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300만원
-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희(농학·97) 200만원
- 동창회 감사**  
 ▲이재봉(회계·90) 200만원  
 ▲김경은(정치외교·99) 50만원
- 장학재단 감사**  
 ▲이성길(법학·78) 100만원  
 ▲김정민(회계·90) 50만원

- 부회장(진행위원)**  
 ▲민정준(의학·85) 50만원  
 ▲황윤찬(치의학·92) 50만원
- 단과대회장**  
 ▲류상옥(해양·82) 50만원  
 ▲박수령(간호·74) 50만원  
 ▲서해현(의학·75) 50만원  
 ▲박연옥(식품영양·90) 50만원  
 ▲오기석(수의·77) 50만원  
 ▲윤진화(미술·86) 50만원  
 ▲이만선(경관·25기) 50만원  
 ▲정경식(경영석사·12) 50만원
-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강대광(농업경제·82) 50만원  
 ▲강태호(농공학·85) 30만원  
 ▲강형선(기계공학박사·02) 50만원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익(경제·84) 50만원  
 ▲고영준(경영·85) 50만원  
 ▲고영철(신소재공학·99) 50만원  
 ▲구동주(경제·82) 50만원  
 ▲김건안(사회문화복지·19) 50만원  
 ▲김경석(법학·79) 50만원  
 ▲김남국(원예·82) 50만원  
 ▲김동찬(경제·26기) 50만원  
 ▲김명근(사학·85) 50만원  
 ▲김병호(의학·72) 50만원  
 ▲김재웅(경제·09) 50만원  
 ▲김보미(미술·08)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김성훈(경영·85) 50만원  
 ▲김성훈(사법·91) 50만원  
 ▲김영래(문화정보·81) 50만원  
 ▲김우열(신문방송·85) 60만원  
 ▲김용권(다문화협력동행사·94) 50만원  
 ▲김종진(행정대학원·82) 50만원  
 ▲김종환(수학·85) 50만원  
 ▲김윤세(경제·10기) 50만원  
 ▲김지현(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재필(출산·82) 50만원  
 ▲김재후(영어영문·80) 50만원  
 ▲김재현(간호·76)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중준(무역·78) 50만원  
 ▲김준안(정치외교·95) 50만원  
 ▲김지현(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해경(경영석사·03) 2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 ▲김현진(미술·90) 30만원  
 ▲나수지(농생물·88) 50만원  
 ▲나형운(행정석사·90) 30만원  
 ▲노미숙(식품영양·82) 50만원  
 ▲노방규(농화학·77) 50만원  
 ▲노복규(의학·91) 50만원  
 ▲노상익(행관·88) 50만원  
 ▲노재형(미술·92) 20만원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류재민(경영석사·02) 30만원  
 ▲류현희(의학·89) 50만원  
 ▲맹중훈(입학·84) 50만원  
 ▲맹진디아스포라학협동·13)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인토(토목석사·96) 50만원  
 ▲문재용(기계공학·85) 50만원  
 ▲민기훈(행정석사·09) 50만원  
 ▲민상준(경영석사·11) 50만원  
 ▲박경우(신문방송·86) 50만원  
 ▲박덕희(공법·85) 30만원  
 ▲박매호(농학·87) 3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서연(화학공학·88)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승기(공학·75) 30만원  
 ▲박원(행정·85) 20만원  
 ▲박주수(경제·83) 20만원  
 ▲박진영(농업경제·91) 5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백지훈(신문방송·90) 50만원  
 ▲박희승(의학·76) 50만원  
 ▲서예린(사법·92) 50만원  
 ▲서영표(정치·23기)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선종애(농·86) 50만원  
 ▲선홍규(경영·78) 50만원  
 ▲손창환(회계·77) 50만원  
 ▲손해수(수학·85) 30만원  
 ▲손화영(국어국문·75) 50만원  
 ▲송갑석(무역·86) 50만원  
 ▲송기희(사회·81) 50만원  
 ▲송중욱(정치외교·81) 50만원  
 ▲신명근(의학·83) 50만원  
 ▲신수정(사회문화복지정책·19) 50만원  
 ▲심재연(간호·76) 100만원  
 ▲안영근(의학·83)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양혜령(치의학·81) 20만원  
 ▲오병석(농학·82)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지(법학·1) 50만원  
 ▲오유내(영어교육·92) 50만원

- ▲오주섭(경영·83) 50만원  
 ▲우남일(수학·88) 50만원  
 ▲위정순(약학·87) 50만원  
 ▲유보선(경관·36기) 50만원  
 ▲유순정(행관·35기) 50만원  
 ▲유승기(행정석사·86) 50만원  
 ▲윤익(미술·84) 50만원  
 ▲이경운(행정석사·85) 50만원  
 ▲이경준(법학·76) 50만원  
 ▲이동원(정치외교·84)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0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상현(원예·94) 50만원  
 ▲이승원(건축·78) 50만원  
 ▲이승택(의학·82) 50만원  
 ▲이영풍(경관·14기) 50만원  
 ▲이영빈(의학·85) 50만원  
 ▲이인호(법학·92) 3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이준영(도시공학협동·7) 30만원  
 ▲임성복(사법·82) 27만원  
 ▲임영민(농학·87) 27만원  
 ▲임종대(금속공학·84) 50만원  
 ▲임지림(원예·83) 50만원  
 ▲임현정(전산·94)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장상문(농공학·81) 30만원  
 ▲전창주(계약·82) 30만원  
 ▲전철오(치의·81) 50만원  
 ▲정경연(경제·83) 5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남(미술·90) 10만원  
 ▲정덕근(일반행정·3) 20만원  
 ▲정만(지역개발박사·5) 5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연실(경제·85) 50만원  
 ▲정장규(경관·28기) 3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혜정(농·85) 50만원  
 ▲조봉근(정치·92) 50만원  
 ▲조상현(농업경제·82) 50만원  
 ▲조영민(무역·84) 50만원  
 ▲조진형(치의학·91) 50만원  
 ▲조종남(사회·89) 50만원  
 ▲주성범(미술·92) 50만원  
 ▲주중섭(철학·88) 50만원  
 ▲차정은(행정·6기) 30만원  
 ▲채영호(회계·89) 50만원  
 ▲최동익(수산과학석사·12) 50만원  
 ▲최정희(사법·92) 50만원  
 ▲최지현(식품공학·91) 50만원  
 ▲최종태(농학·81) 15만원  
 ▲최현진(무역·89) 50만원

- ▲한대호(원예·88) 10만원
- ▲홍경섭(행정·87) 10만원
- ▲홍인화(생물·83) 30만원
- ▲홍중희(기계공학·70) 50만원
- ▲황선욱(의학·66) 50만원

- 상임이사**
- ▲강경민(법학·99) 30만원
  - ▲문선화(국악·95) 30만원
  -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 ▲신중희(사립지원·99) 30만원
  - ▲윤정우(응용화학·94) 30만원
  - ▲이부일(컴퓨터공학·95) 30만원
  - ▲이삼섭(신문방송·10) 30만원
  - ▲이선미(독어독문·02) 30만원
  - ▲이영주(약학·94) 30만원
  -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 ▲정달성(과학교육·99) 30만원
  - ▲정서연(미술·92) 10만원
  - ▲정천규(행관·34기) 30만원
  - ▲조영창(약학·02) 30만원
  - ▲차상혁(사립지원·14) 30만원
  -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 ▲최규하(윤리교육·96) 30만원
  - ▲최석민(기계공학·08) 30만원
  - ▲최종명(정치외교·98) 30만원

- 이사**
- ▲임동국(약학·03) 20만원
  - ▲정경훈(약학·11) 20만원
  - ▲전미희(식품생명공학·0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12월 31일)**

-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 ▲마영원(화학·83졸) 50만원
- ▲김 원(의학·76) 50만원

**연회비 (1월 1일~12월 31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박상옥(간호·68)
  - ▲문정선(간호·74)
  - ▲서향자(간호·67졸)
  - ▲안정옥(간호·77)
  - ▲이중임(간호·82)
  - ▲최선례(간호·60졸)
  - ▲최영자(간호·73졸)

- 경영대학**
- ▲강대성(무역·76)
  - ▲강부암(회계·90)
  - ▲고광원(경영·74)
  - ▲김남규(회계·84)
  - ▲김선윤(경영·83)
  - ▲김영근(경영·87)
  - ▲김영철(경영·75)
  - ▲김원호(경제·65)
  - ▲김문고(회계·82)
  - ▲김재명(경영·87)
  - ▲김재인(경영·83)
  - ▲김기문(경제·64)
  - ▲김영한(경제·80)

- ▲김현(경제·69)
- ▲김정호(무역·79)
- ▲김태수(경영·80)
- ▲민화식(경제·58)
- ▲박병준(경영·80)
- ▲봉필섭(회계·83)
- ▲송홍식(무역·74)
- ▲송천식(무역·58)
- ▲윤명호(무역·67)
- ▲이문규(무역·87)
- ▲이승규(행정·90)
- ▲이주환(지역개발·86)
- ▲임문규(경영·73)
- ▲정동원(회계·81)
- ▲정선호(무역·77)
- ▲최성주(경제·80)
- ▲한동철(무역·75)
- ▲한성수(회계·82)
- ▲홍장표(경제·55)

-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강진하(금속공학·72)
  - ▲고형석(건축공학·61)
  - ▲김관현(토목공학·61)
  -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상태(기계공학·75)
  - ▲김선식(화학공학·69)
  - ▲김성규(토목공학·79)
  - ▲김영영(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영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규(토목공학·80)
  - ▲김중근(건축공학·72)
  - ▲김지하(금속공학·68)
  - ▲김현호(화학공학·80)
  - ▲김형주(화학공학·80)
  - ▲노한주(화학공학·70)
  - ▲류정규(화학공학·84)
  - ▲문해주(기계공학·78)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수식(토목공학·83)
  - ▲박종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8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69)
  - ▲오상용(화학공학·72)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석하(섬유공학·71)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용일(화학공학·83)
  - ▲이은수(기계공학·81)
  - ▲이재도(토목공학·71)
  - ▲이한복(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공학·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현성(회계·73)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희(화학공학·77)
  - ▲장상욱(전기공학·72)
  - ▲정달성(전기공학·72)

- 법과대학**
- ▲김한주(공법·86)
  - ▲김형섭(법학·72)
  - ▲김희열(사법·86)
  - ▲김규중(행정·72)
  - ▲김길원(법학·65)
  - ▲김병하(법학·77)
  - ▲김성홍(사법·91)
  - ▲김세근(법학·7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수(행정·87)
  - ▲무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성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섭(법학·74)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주천득(법학·58)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인봉(법학·58)

- 사범대학**
- ▲김종해(지리교육·81)

- ▲정우섭(화학공학·70)
- ▲정우홍(기계공학·74)
- ▲정현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공학·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심영기(건축공학·70)
- ▲최경중(토목공학·78)
- ▲최민철(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서(금속공학·81)

-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김을수(임학·79)
  - ▲김재익(농화학·68)
  - ▲남석우(농화학·85)
  - ▲박금중(농학·73)
  - ▲박상준(조경·83)
  - ▲박인진(농학·66)
  - ▲박준기(농업경제·86)
  - ▲배현중(임신기공·85)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임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신재우(농학·71)
  - ▲유종석(임학·78)
  - ▲이덕범(임학·77)
  - ▲이영송(농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행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 ▲한태원(원예·88)

-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김종우(철학·72)
  - ▲류수범(영어영문·76)
  - ▲문홍기(국어국문·60)
  - ▲박준중(중어중문·84)
  - ▲성낙주(시학·72)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이상규(영어영문·81)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수영(영어영문·76)

-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 ▲문점호(생물·73)

- ▲박경자(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주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영수(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화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 생활과학대학**
- ▲박미림(의류·80)

- 수리과학대학**
- ▲고진구(수리학·73)
  - ▲고태오(수리학·80)
  - ▲문무광(수리학·61)
  - ▲문병현(수리학·73)
  - ▲배병선(수리학·72)
  - ▲성광일(수리학·53)
  - ▲안인수(수리학·69)
  - ▲임규기(수리학·76)
  - ▲유동현(수리학·56)

- 약학대학**
- ▲김영관(약학·86)

- 인과대학**
- ▲김용덕(의학·75)
  - ▲김종성(의학·77)
  - ▲민해란(의학·78)
  - ▲박차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인(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양재우(의학·65)
  - ▲오정호(의학·62)
  - ▲윤영의(의학·61)
  - ▲이기운(의학·79)
  - ▲이규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김종우(철학·72)
  - ▲류수범(영어영문·76)
  - ▲문홍기(국어국문·60)
  - ▲박준중(중어중문·84)
  - ▲성낙주(시학·72)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이상규(영어영문·81)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수영(영어영문·76)

-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 ▲문점호(생물·73)

- ▲유승권(물리·8)
- 치과대학**
- ▲송진명(치의학·95)
  - ▲최준규(치의학·87)
  - ▲전상민(치의학·00)

- 자율학부**
- ▲정기람(자율·10)

-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병옥(여성지도자과정·1기)

- 경영대학원**
- ▲이양원(경관·35기)

-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민수(경영석사·02)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김영진(경영석사·90)
  - ▲이우섭(경관·22기)
  - ▲이학재(경관·21기)
  - ▲임중학(경영석사·34기)
  - ▲정광원(경관·27기)
  - ▲하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 변화전문대학원**
- ▲차기현(법학석사·10)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안근철(체육·18)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류인섭(원예·95)
  - ▲박남규(자원공학·92)
  - ▲유영선(기계공학·1)
  - ▲이복의(교육·05)
  - ▲임일빈(농학·89)
  - ▲조안수(생활환경복지·10)

- 산업대학원**
- ▲권오진(토목공학·12)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안경섭(식품위생·18)

- 정책대학원**
- ▲김홍태(행정·5)
  - ▲신승수(행정·2)
  - ▲심재록(최고정책·14기)
  - ▲박성훈(행정·0)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92)
  - ▲이길성(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 ▲한동석(행정·99)
  - ▲홍준일(행관·30기)

- 치의학전문대학원**
- ▲김예슬(치의학·15)
- 교직원**
- ▲유희석(교직원)

- 단과대학불분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2026년 1~2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2월 28일)**

- 이사장**
-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 상임고문**
-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 고문**
- 김성전(의학·59) 30만원
  - 김세자(간호·71) 30만원
  -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 양한모(의학·69) 30만원

- 자문위원**
- 김영규(행관·23기) 30만원
  - 김영진(의학·73) 30만원
  - 신중봉(수의학·71) 30만원
  -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 최철수(전기공학·68) 30만원

- 수석상임부회장**
- 최희동(원예·74) 200만원

- 상임부회장**
- 윤영주(회계·85) 300만원
  - 최옥자(간호·87) 100만원

- 단과대회장**
- 김용환(수의학·85) 50만원

- 부회장**
- 강은미(해양·89) 50만원
  - 강훈열(사법·86) 50만원
  - 김일원(음악·89) 30만원
  - 김정희(행정·86) 50만원

-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 박성민(농업경제·91) 50만원
- 박필순(불어불문·93) 50만원
- 오병석(의학·91) 50만원
- 최기연(법학·95) 50만원
- 최해덕(사법·81) 20만원

- 상임이사**
- 문종민(체육·75)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2월 28일)**

- 김보현(금속공학·79)
- 고동규(화학공학·06)
- 박준수(기계공학·73)
- 송경희(영어영문·86)

**연회비 (1월 1일~2월 28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문정선(간호·74)

- 경영대학**
- 강부암(회계·90)
  - 기원경(경영·86)
  - 김기문(경제·64)
  - 김봉욱(회계·83)
  - 김영근(경영·87)

- 김영철(경영·75)
- 박인순(지역개발·89)
- 왕진태(경제·83)
- 한동철(무역·75)
- 한성수(회계·82)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은지(정보통신·99)
- 김현호(금속공학·68)
- 박수식(토목공학·83)
- 서금렬(공업화학·85)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이봉욱(금속공학·81)
- 이현균(기계공학·79)
- 장상욱(전기공학·72)
- 장철희(자원공학·85)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영기(건축공학·72)
- 최문길(전기공학·70)

**농업생명과학대학**

- 강 용(낙농·85)
- 기갑서(농업경제·68)
- 기성주(농생물·84)
- 김재업(농화학·65)

- 박금중(농학·73)
- 서영권(농학·69)
- 양종식(농업경제·66)
- 이영성(농화학·83)
- 정기환(식물생명·14)
-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 김철영(법학·57)
- 김용환(법학·60)
- 박병철(법학·75)
- 이두백(법학·69)
- 이호문(사법·84)
- 임성환(법학·74)

**사범대학**

- 이명자(지리교육·86)
- 장길수(생명교육·82)

**사회과학대학**

- 손정태(문화정보·81)
- 한성수(정치외교·72)

**수리과학대학**

- 성광일(수리학·53)
- 안인수(수·69)
- 유동현(수·56)

**의과대학**

- 남광우(의학·78)
- 김종성(의학·78)
- 문형환(의학·68)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고지문(영어영문·59)

- 황수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유승권(물리·08)

**경영전문대학원**

- 고병선(경관·29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채복경(간호·05)
- 이일순(체육·16)

**정책대학원**

- 배병규(정책·99)
- 유병희(사회문화복지정책·17)
- 정현철(행정석사·85)
- 무기명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정책대학원
- 정석: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LOBAL SAE-A

GLOBAL SAE-A GROUP  
쌍용건설

# Who made it?

어떻게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싱가포르의 새로운 상징이 된 세계적 랜드마크  
나는 지금,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지는  
더 큰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세아의 가족이 된 쌍용건설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싱가포르, 2010)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기울어진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건축물.  
52도 기울어진 호텔과 길이 340m, 중형 승용차 43,000대 무게의 스카이 파크를 포함한 지상 57층 3개동 총 2,561객실 규모의 이 호텔을  
전세계의 찬사 속에서 쌍용건설이 완벽하게 단독 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습니다.